



■ ■ ■ 미리보는 드루파 2008 / one world one drupa

## 디지털 전문관 크게 확대 업체별 신기술 경쟁 팽팽

인쇄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향후 기술동향을 가늠하는 자리로 평가받는 드루파 전시회가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이에 전시회 주최 측인 메세 뒤셀도르프는 드루파2008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세계 40여개국 130여명의 미디어 관계자를 초청, 콩그레스센터에서 드루파2008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이를 현지에서 취재, 보도한다. <편집자 주>





드루파 2008 설명회는 주최 측인 메세 뒤셀도르프의 전시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설명으로 시작됐다.

특히 신규 아이템의 발굴과 시장개척을 겨냥한 신개념의 전용 공간으로 마련되는 드루파큐브와 디지털 전문 전시관으로 조성되는 드루파 이노베이션 파크(DIP : Drupa Innovation Parc)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할애, 관심을 극대화 했다.

또한 인쇄기기, 솔루션, 서비스 등의 인쇄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드루파 2008 참가 업체들은 인쇄산업의 향후 4년을 이끌어 갈 신기술과 신제품을 대거 공개함으로써 전시회에 대한 기대를 한껏 드높였다.

### 향후 4년 위한 신기술 · 신제품 대거 공개

전통 오프셋 인쇄기기 대표주자인 하이텔베르그는 '높은 운영효율, 높은 가치(High performance, High value)'를 모토로 드루파2008을 준비하고 미래의 변화하는 인쇄환경에 대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잉크젯 프린터 전문기업인 도미노는 드루파2008에서 선보일 신제품인 비트젯+v4.5, k150, k200 등을 미리 공개했다. 프리프레스 소프트웨어 및 워크플로 전문기업인 달림소프트웨어는 JDF 워크플로에서 컬러매니지먼트에 이르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장점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으며 프레스테크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오프셋 인쇄기인 DI의 기술 향상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지난해 IBM 디지털 인쇄부문을 합병, 상업용 디지털 인쇄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





## tip 각 홀별 전시업체 현황

### 1·2번 홀

하이델베르크, 플라

### 3·4번 홀

인쇄, 재료, 서비스(예: 프레스테크유럽, 사쿠라이그래픽시스템스)

### 6번홀

만로랜드 프린트시티 및 네트워크 파트너, 다국적 인쇄 후가공 전시업체

### 10~12번 홀

종이 가공, 패키징 제품(예: 붐스트 S,A)

### 12~14번홀

제책, 후가공(예: 호리존, 물러마티니)

### 15~17번홀

인쇄기계, 제책기계, 후가공기계(예: KBA, 콜버스, 고모리, 미쓰비시, 료비 등)

### 12번홀

70여 딜러들이 참석하는 중고 인쇄기계 시장

고 있는 리코는 리코프로C900 및 C900s를 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디지털 프린팅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코닥GCG의 독립법인인 코닥PODS는 크레오 컬러 서버의 생산성과 운영실적을 크게 향상시킨 누에보(Nuevo) 기술과 새로운 워크플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스크린도 드루파2008을 통해 트루프레스젯520, 트루프레스젯2500UV, 트루프레스젯650UV 등의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를 선보이고 디지털 프린팅 기기에 대한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 전문기업인 EFI는 ▲통합화 ▲정보력 강화 ▲디지털 프린팅 다양화 ▲산업용 프린팅(라벨, 패키징) 시장 확대 ▲친환경 등의 5가지 운영 목표를 공개했다. 로고를 바꾸고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제록스는 JPEG 플러그인 기능이 추가된 프리플로 워크플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아이젠3 3.0 소프트웨어, 제록스650/1300 연속지 디지털 프린터, 제록스 490/980 컬러 연속지 디지털 프린터 등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후지필름은 오프셋 인쇄업체의 사업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 프리프레스 및 프레스룸 솔루션을 강화하고 그래픽아트 사업의 향상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며 M&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후지필름의 역량을 확대한다는 마케팅 전략을 공개했다. 아울러 제록스와 후지필름은 드루파2008 전시회 동안 8b 홀에 '디지털 프린팅 존'을 공동으로 설립, 디지털 및 오프셋 인쇄 기술과 관련한 통합 워크플로, 컬러매니지먼트, POD 솔루션 등을 시연할 예정이다. 코닥은 드루

〈표1〉 하이라이트투어 일정

투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1.네트워크 프린트: 워크플로는 인쇄업체에 얼마만큼 필요한가?	오전 10:30	오후 1:30	오후 1:15	오후 1:15	오후 1:00	언어별 날짜
2.웹2프린트: 자동 프린트 프로덕션의 원칙	오전 10:30	오후 1:30	오후 1:15	오후 1:15	오후 1:00	중국어는 5월 29일 6월 2일 6월 4일 6월 6일 6월 10일
3.프린트 프로덕션 기획: 디자인, 이미지처리, 레이아웃 트렌드	오전 10:45	오후 1:30	오후 1:15	오후 1:15	오후 1:00	
4.CTP: 혁신적 이미징 기술 및 적당한 판재	오전 10:45	오후 1:45	오후 1:15	오후 1:15	오후 1:00	스페인어는 5월 30일 6월 3일 6월 6일 6월 9일 6월 11일
5.디지털프린팅: 최첨단 프린팅 시스템- 혁신적 프린팅 제품	오전 10:45	오후 1:45	오후 1:15	오후 1:15	오후 1:00	
6.잉크젯프린팅: 프린팅 공정의 밝은 미래	오전 11:00	오후 1:45	오후 1:15	오후 1:15	오후 1:00	
7.오프셋프린팅: 자동화 통한 향상된 비용 효율성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1:15	오후 1:15	오후 1:00	프랑스어는 5월 30일 6월 3일 6월 9일
8.메가-트렌드 인라인 피니싱: 시스템 및 재료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1:15	오후 1:15	오후 1:00	
9.패키징 및 라벨 제품: 부분코팅에서의 혁신성	오전 11:15	오후 2:00	오후 1:15	오후 1:15	오후 1:00	
10.인쇄후가공: 혁신적 인라인 제품	오전 11:15	오후 2:15	오후 1:15	오후 1:15	오후 1:00	

파2008에서 전자사진 시스템 시장 공략을 위한 S-클래스 넥스프레스 신제품을 전시하는 한편,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 강화를 위한 프리너지 워크플로 시스템 버전 5.0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그너스800 플레이트세터, 디지털마스터 EX 시스템을 공개하고 코닥 인사이트 시스템 및 코닥 프리너지 디지털 프린트 시스템을 통해 웹2프린트, 플랜2프린트 신기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 1800여 전시업체 참여 40만 방문객 예상

이번 행사에서 베르너 매티아스 돈슈이트(Werner Matthias Dornscheidt) 메세 뒤셀도르프 회장은 “드루파는 인쇄산업 세계 제일의 국제 전시회다. 다른 어떤 전시회도 드루파와 같이 인쇄 미디어 산업에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드루파는 살아있는 신화로서 50년 이상 인쇄 미디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전시회 역할을 해왔다”면서 “드루파는 매 4년마다 국제 경쟁에 보조를 맞추기 원하는 수십만명의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미래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발견할 수 있는 드루파2008에는 전세계에서 1800 이상의 전시업체가 참여하고 17만㎡ 이상의 전시면적에 40만의 방문객, 3500명 이상의 언론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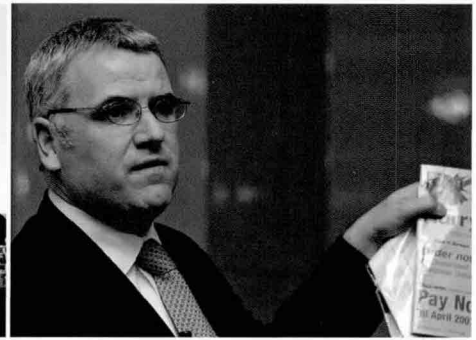
알브레흐트 볼자-슈네만(Albrecht Bolza-Schunemann) 드루파2008 회장(KBA 대표이사)은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은 인쇄와 만나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50여개국에서 참가하는 1800여명의 전시업체들은 인쇄와 관련한 모든 주제와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다”면서 “2008년 5월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21세기 프린트 미디어의 가능성의 세계를 확인하자”고 밝혔다.

드루파2008에서는 인쇄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제공했던 나라들의 참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최국인 독일(7만㎡ 이상)이 가장 많은 전시면적을 확보했으며 미국(1만3천㎡ 이상), 이탈리아(1만3천㎡ 이상), 스위스(1만2천㎡ 이상), 네덜란드(9천㎡ 이상), 일본(8천㎡ 이상), 영국(7천㎡ 이상), 스페인(6천㎡ 이상), 벨기에(6천㎡ 이상) 등도 큰 규모로 참석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EFI, 달림소프트웨어, 도미노, 리코, 후지필름

오른쪽면.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레스테크, 코닥, 코닥PODS, 제록스, 스크린, 하이델  
베르그



### 각 프로그램별 일정

#### 컴파스 세션 일정

- 5월 30일 디지털 프린팅
- 5월 31일 디지털 워크플로
- 6월 2일 오프셋 프린팅
- 6월 3일 웹2프린트 솔루션
- 6월 4일 인쇄 전자(파트너 OE-A)
- 6월 5일 프리미디어
- 6월 6일 패키징 프린팅
- 6월 7일 디지털 프린팅
- 6월 9일 디지털 워크플로
- 6월 10일 프리미디어
- 6월 11일 오프셋 프린팅

#### 드루파큐브 프로그램 일정

- 5월 29일 직접광고/프리스트의 날
- 5월 30일 신문의 날
- 6월 2일 잡지의 날
- 6월 3일 협동출판의 날
- 6월 4일 대화 마케팅의 날
- 6월 5일 카탈로그의 날
- 6월 6일 미디어 제품의 날
- 6월 9일 포장/브랜드 보호의 날
- 6월 10일 대형포맷프린트의 날



또한 신흥 인쇄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7800㎡ 이상)과 인도(2400㎡ 이상)는 부스점유율이 전회대비 각각 300%, 60% 증가했다.

디지털 솔루션 공급업체들이 1만㎡의 전시영역에 준비하는 디지털 주제관은 드루파2004와 비교해 크게 보완됐다. 전시장 북쪽에 위치한 2개의 새로운 홀인 8a, 8b가 이 분야의 중심으로 된다. 인접한 5번 홀과 9번 홀은 디지털 솔루션 공급업체(아그파, 캐논, 코닥, 엡손, 후지필름, HP, 코니카미놀타, 오세프린팅시스템, 리코, 제록스 등) 등을 중심으로 꾸러지게 된다.

### 각 주제별 전시 행사 다양

드루파2008에는 개별적인 주제를 갖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드루파이노베이션파크(DIP : Drupa Innovation Parc)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3300㎡ 이상의 전시공간에서 8개 분야 160개의 전시업체가 참여하는 DIP는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공급업체들이 프린트 및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젊고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임으로써 가장 주목받는 전시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인쇄&미디어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컴파스 세션도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현재의 기술 동향과 기계, 소프트웨어, 워크플로, 제조 기술 및 제품에 대해 강연을 한다. 각각의 컴파스 세션은 현재 인쇄산업의 동향에 대해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하이라이트투어에 참가하면,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해 보다 알찬



사업적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 가이드투어는 전시업체의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사업상담을 위한 전문가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0가지 개별 투어로 진행되며 독일어와 영어는 매일 제공되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도 지원된다.

프린트 바이어와 마케팅 담당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드루파큐브는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 공간이다. 콩그레스센터 남쪽의 라인강 쪽에 설치되는 드루파큐브는 2층의 하얀색 입방체 형태 건물로 조성된다. 드루파큐브의 모든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스, 마케팅, 디자인 협회들과 협동으로 드루파 타깃 그룹을 위해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들을 인포테인먼트 형식을 빌어 다룬다.

### 공식 홈페이지 통한 각종 편의 서비스 제공

드루파2008는 공식 홈페이지(www.drupa.com)를 통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드루파 서치(search) 엔진을 통해 타깃/세부 전시업체 및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검색 업체

〈표2〉 제품 분류별 전시업체(2008년 1월 10일 기준)

제품 분류	전시업체			전시면적(m <sup>2</sup> )		
	독일	해외	계	독일	해외	계
프리프레스/프리미디어	106	157	263	11,574	22,438	34,012
인쇄	151	326	477	29,383	38,111	67,494
제책/후가공	72	165	237	11,657	21,630	33,287
종이가공/포장제품	80	132	212	7,669	10,085	17,754
재료	68	113	181	3,331	3,723	7,054
종이/합지/카톤	12	32	44	836	3,170	4,006
잉크	17	24	41	1,530	2,344	3,874
서비스	99	94	193	3,245	2,451	5,696
총계	605	1,043	1,648	69,225	103,952	173,177

의 전시회 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업체의 정확한 위치 및 스탠드 번호는 'My Organizer' 를 통해 편리하게 관리된다. 'My Catalog' 기능을 통해서서는 사용자들이 전시업체의 프로파일, 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matchmaking' 기능도 드루파 2008에 맞춰 선보인다. 이 기능은 수요와 공급 라인을 복잡하지 않게 연결하는 디지털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뒤셀도르프에서 조갑준 기자